

■ 88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연말 개통되면

담양지역 마을길 확 뚫린다

수북면 등 4곳 기존도로연계 진입로 포장 담양 다이너스티CC 등 접근성 더욱 좋아져

마을로 들어오려면 꼬불꼬불한 샅길을 이리 저리 운전해야 했던 담양군 담양읍·수북면 주민들. 내년부터는 넓게 뚫린 도로를 타고 '성~성~' 달릴 수 있게 됐다. 다음달 신(新) 88올림픽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마을로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새로 개설되는 것이다.

신 88고속도로의 개통과 선형 변경은 골퍼(golfer)들에게도 희소식이다. 담양 다이너스티C.C 골프장을 가는 길이 훨씬 단축되기 때문이다.

◇넓어지는 88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2월 17일 88올림픽고속도로 '고서~담양' 구간 16.34km를 새로 개통한다. (도표) 신 도로는 기존의 도로보다 광주 쪽으로 200m~1km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서분기점~담양분기점으로(3km)는 왕복 6차로 ▲담양분기점~순창 IC(13.34km)는 왕복 4차로로 건설됐다.

기존의 도로가 왕복 2차로인 점을 감안하면 2~3배 넓어지는 셈이다. 또 기존의 도로가 곡선형이었던 것에 비해 신 도로는 직선형으로, 총 연장이 기존 구간(17.5km)에 비해 1km 가량 짧아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외 호남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를 잇는 '장성~담양'(25.4km) 고속구간을 올 연말 개통할 예정이며,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고창~장성'(17.1km) 고속구간도 내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고속국도 건설공사에는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 등 17개사

가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고서~담양' 2천566억원 ▲'장성~담양' 5천129억원 ▲'고창~장성' 3천169억원 등 총 1조864억원이 투입됐다.

◇접근 편리해진 담양군=신 88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기존의 고속도로는 담양군에 이관된다. 담양군은 기존 도로를 새로 포장하고 평면교차로를 신설해 인근 마을을 직접 잇는 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예산 20억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원한다.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마을은 ▲담양읍 반용리 '용주마을'(53세대·161명) ▲담양읍 화동리 '화동마을'(82세대·174명) ▲화동리 '깊은실마을'(24세대·52명) ▲수북면 남산리 '남산마을'(163세대·394명) 등 4곳. 공사 기간은 3~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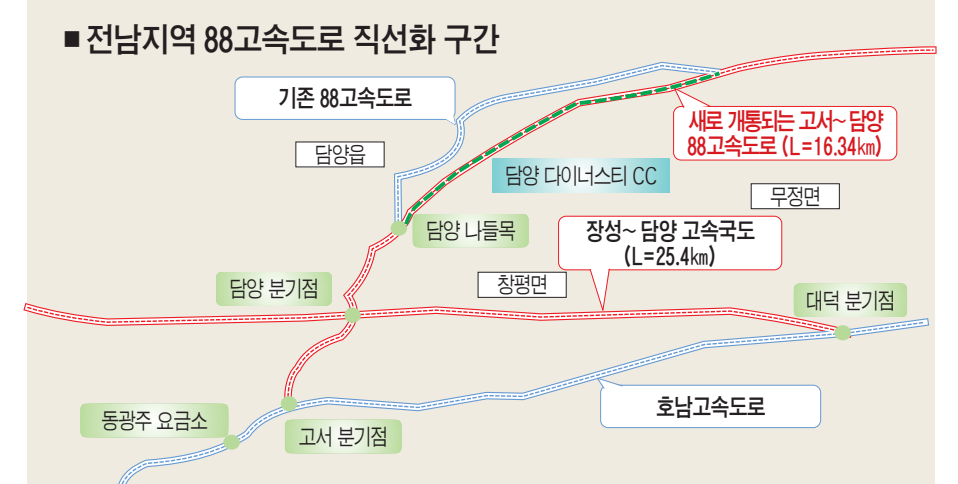
'깊은실마을' 전경수(46) 이장은 "전에는 마

을로 들어오는 길이 승용차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아 대형 차량은 들어오지도 못했다"면서 "엄원이라 마을 입구 도로 확장이 이루어져 주민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프장 진입도 용이=담양군은 또 '깊은실마을'과 올해 연말 개장 예정인 담양 다이너스티 C.C 골프장 700m 구간에 새 도로를 놓을 계획이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이 도로는 신호등이 없어, 담양 IC~담양다이너스티C.C 간 소요시간을 기존보다 5~6분 이상 단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 고속도로에 진입, 골프장까지 가는 데는 기존 2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된다.

담양군 금성면 외추리 산 83번지에 위치한 담양다이너스티 C.C는 총 18홀(파72·6천384m) 규모로 해발 200m의 완만한 구릉지에 코스별로 다양하고 독특한 특성을 한껏 만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린 최상의 자연친화적 골프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다음달 개통될 88올림픽고속도로 '고서~담양'구간 담양 IC의 모습. 왕복 4~6차로인 '고서~담양'구간 도로는 기존 도로보다 폭이 2~3배 넓으며, 거리도 1km 가까이 단축됐다. /담양=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88고속도로 고서~담양구간 개통되면

시속 100km 가능 '5분 단축'

88올림픽고속도로 '고서~담양' 구간이 새로 개통되면 운행시간이 단축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죽음의 도로'라고 불리는 88고속도로의 악명을 어느 정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고서~담양' 구간은 제한 최고 속도가 시속 80km였지만, 신 구간은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요시간이 14분에서 9분으로 5분 단축된다.

도로가 넓어지면서 교통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008년 고서교차로~봉산교차로의 1일 평균 교통량이 지난 2003년에 비해 1만2천여 대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봉산

물류비 연 1,187억원 절감 '죽음의 도로' 오명 씻을 듯

교차로~담양IC 구간과 담양IC~순창IC 구간은 각각 9천여 대와 8천여 대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고서~담양' 구간과 '장성~담양' 구간이 잇따라 개통되면서, 호남고속도로 광주시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절감되는 연간 물류 비용만 연간 1천187억원. 광양항 개발을 촉진하고, 광주 첨단산업 등 광주지역 산업 단지화 다른 권역과의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되는 효과

중 하나다. 신 구간의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고, 직선형이어서 사망사고가 크게 줄어줄 것이라는 게 한국도로공사의 설명이다.

88고속도로는 지난 15년간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최고의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을 기록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2005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1990~2004년 88고속도로의 치사율은 32.0(사고 100건당 32명 사망)을 기록, 전국고속도로 중 가장 높았다. 이 기간 동안 88고속도로에서는 1천99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640명이 죽고 4천768명이 부상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올해 연말 88고속도로 경북 '옥포~성산' 12km 구간도 기존 왕복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된다"면서 "내년부터는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어느 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어렵고 힘든 법률문제! 이제 전문 법무사와 상담 하십시오!

<p>· 개인회생 파산신청</p> <p>김성근 법무사</p> <p>무채종용 발급 대행</p> <p>각종통기경매 상담</p> <p>T.062-2081-3341</p>	<p>· 계약서 작성</p> <p>주기형 법무사</p> <p>연말유예 저리대출 상담</p> <p>법률상담, 계약, 민사, 부동산관련법률 상담</p> <p>T.062-222-9121-1</p>	<p>· 가산세 환급</p> <p>박홍우 법무사</p> <p>법인 회계·파산 관련</p> <p>법률·회계·세무·노무</p> <p>T.062-2195-7079-9992</p>	<p>· 부동산 관련 상담</p> <p>송홍원 법무사</p> <p>민사·형사·상사·합의</p> <p>· 부동산 관련 상담</p> <p>T.062-2314-4200</p>	<p>· 민사·형사·합의</p> <p>윤재호 법무사</p> <p>부채종용발급, 무채 발급, 수입증 발급 가능</p> <p>T.062-2084-3788-5</p>	<p>· 계약서 작성</p> <p>이상준 남종우 법무사</p> <p>해방!</p> <p>T.062-2081-4833, 011-625-6007</p>
--	---	---	---	--	---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 심장질환!!

북한의 김영남박사가 발명한 혈액정화기! 태양빛을 받는 순간 피가 맑아지고 힘이 생기는 이 기술을 북한에서는 '빛삼' 즉 '빛의 산삼'이라고 부른다.

북한에서 이 기술을 50년대 석회에서 성취를 알아내는 비밀은 산삼기술에 비견될 만한 세계적인 발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이 혈액정화기! 석회에서 '빛정화기'는 북한에서 10년간의 독자적 고수품 개발연구의 결과로 1994년도에 처음으로 상용화된 북한산품이다. 석회정화기 연구, 개발, 생산에 10년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책을 보는 순간 슬픔에서 행복으로

▶진심으로 신망하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비밀번호: 건강인 세상 15233775-0459, 0419